

# 비대격가설과 현대중국어 ‘被’구문\*

金仁順\*\*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비대격가설의 정의
3. 비대격구문과 ‘被’구문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능력(Ergativity)은 크게는 언어 유형론적 측면에서부터, 작게는 보편문법의 측면까지 다양한 언어현상들에 적용되어 간결하게 그 현상들을 설명해 내고 있다. 즉, 능력이란 용어는 언어 유형론적 측면에서 격의 한 유형을 말하는 것이고,<sup>1)</sup> 보편문법의 측면에서 동사의 한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Perlmutter (1978)는 관계문법(Relational Grammar)의 틀 내에서 ‘능력’이라는 용어가 아

\* 본 논문은 2010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1) 능력은 언어 유형론에서 격 표시 체계에 의해 주격-대격 언어(nominative-accusative language)와 능력언어(ergative language)로 나뉘던 개념이다.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동일하게 주어로 쓰이면 ‘대격언어’이다. 즉 타동사의 주어와 자동사의 주어가 동일한 격인 주격(nominative)을 표지하며, 타동사의 목적어는 다른 격인 대격(accusative)을 표지한다. 능력(Ergativity)이란 개념은 정반대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하게 주어로 쓰이면 ‘능력언어’이다. 즉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한 격인 절대격(absolutive)을 표지하고, 타동사의 주어가 다른 격인 능력(ergative)을 표지한다.

니라 '비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비대격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을 제안하게 된다. 그가 비대격가설을 제시한 이후로 Burzio(1986)에 의해 이 이론은 좀 더 구체성을 띄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성문법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 가설은 언어 보편성 이론에 의해 존현문(Existential Constructions), 사역문(Causative Constructions), 피동문(Passive Constructions) 등과 같은 중국어의 여러 언어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현대중국어 '被'구문과 비대격구문<sup>2)</sup>이 유사한 생성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은 '被'구문과 영어 수동문의 생성과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함의한다.<sup>3)</sup> 즉 '被'구문은 영어 수동문과 같이 외부논항이 억제되어 대격(accusative case) 부여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의미역 위치인 주어 위치에 의미역을 가진 목적어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의미역준거(Theta-criterion)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被'구문과 비대격구문의 심층구조(D-Structure)가 동일하고, 그 미자질이 [-행위자성(agentivity)]임을 가정한다.

이와 같이 '被'구문과 비대격구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被'구문을 분석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비대격가설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를 제시하고, 혼란이 되어왔던 능격과 비대격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통해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에 출현하는 다양한 비대격구조의 유형을 살펴보고, 비대격구문과 현대중국어 '被'구문과의 연관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 두 구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이 두 구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2) 본고에서 사용하는 비대격구문 혹은 비대격구조라는 용어는 비대격동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를 말한다.

3) Perlmutter(1978)는 비대격동사를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을 취하나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을 취하지 않는 동사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비대격동사는 피동사(passive verbs)와 심층구조가 동일하다. 즉 피동사 역시 내부논항을 취하나 외부논항을 취하지 않는다. (Levin & Rappaport Hovav 1995:3)

한다.

## 2. 비대격가설의 정의

동사는 전통문법에서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된다. 그런데, 단순히 한 부류로 분류되었던 자동사가 통사 상에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학자들이 주목하게 된다. 자동사가 두 가지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은 Perlmutter (1978)의 관계문법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John walked.  
b. John arrived.

(1a)의 'walk'와 (1b)의 'arrive'는 모두 1항술어이고, 그 유일한 논항이 동사 앞의 주어위치에 출현하여 표층구조(S-Structure)가 동일하다. 그러나 (1a)의 자동사는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로, (1b)의 자동사는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로 분류된다. 자동사의 논항이 논리주어(logical subject)일 경우 비능격동사로, 자동사의 논항이 논리목적어(logical object)일 경우 비대격동사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비대격동사는 논리목적어를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하지만 이 논항은 표층구조에서 문법적 주어가 된다는 것이다. 비대격구문 (1b)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 (2) [e] arrived John ([e]는 주어자리가 비어있음을 표시) → John<sub>i</sub> arrived  
t<sub>i</sub> (t는 이동한 흔적을 표시) → John arrived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의 이러한 통사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자동사를 두 개의 다른 부류로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예(2)와 같은 현상

이 나타나는 동사를 ‘비대격동사’라고 명명하게 된다. Burzio(1986)는 지배 결속 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 안에서 비대격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4)</sup>

비대격동사는 하나의 논항을 택하는 동사인데, 그 논항이 논리주어가 아니라 논리목적어이다.

위의 예문 (1b)의 심층구조에서는 논리목적어를 택하나 논리주어를 택하지 않으므로 대격을 할당할 수 없다. 따라서 ‘John’은 동사로부터 격을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격여과(Case Filter)에 의거한 의미역준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즉 Burzio는 비대격동사를 논리목적어를 택하면서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주지 않는 동사로 보았다. 그는 심층구조와 연관해서 이 두 부류의 동사 즉,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 (3) a. 비능격동사: NP V  
 b. 비대격동사: [e] V NP                      Burzio(1986:64)

(3a)에서처럼 비능격동사는 심층논리주어만을 취하며, 심층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 속한다. 반면에 비대격동사는 (3b)에서처럼 심층논리목적어만을 취하여, 심층무주어문에 속한다.

Burzio(1986)는 1항술어를 ‘비능격’과 ‘비대격’으로 나누는 것 외에 2항술어도 ‘타동(transitive)’과 ‘사역(causative)’의 두 종류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5)</sup>

4) Burzio는 Perlmutter가 사용한 ‘비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능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비대격’과 ‘능격’은 명칭만 다르지, 그 기본정의를 같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동사의 격 부여 능력과 논리목적어의 이동이라는 자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에 Perlmutter의 ‘비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5) 黃正德(2007:4) 재인용.

- (4) a. 비능격동사: cry, laugh, talk, sneeze, jump 등.  
 b. 비대격동사: exist, appear, come, be, arrive, happen 등.  
 c. 타동사: eat, drink, hit, criticize, kick, discuss, write 등.  
 d. 사역동사: break, sink, move, open, close 등.

이와 관련하여 비대격동사는 다시 세분화가 가능한데, 비대격동사 중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성질을 모두 갖춘 동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태구 2002:68~69).

- (5) a. Pat broke the window.  
 b. The window broke.  
 (6) a. Antonia opened the door.  
 b. The door opened.  
 (7) a. Tracy sank the ship.  
 b. The ship sank.

위의 예에서는 동일한 동사가 형태상의 변화 없이 타동사와 자동사로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이 타동사와 자동사 간에 동사교체(verb alternation)가 되는 자동사를 능격동사(ergative verbs)라고 한다.<sup>6)</sup> 능격동사는 (5)-(7)에서 보듯이 반드시 상응하는 타동사 또는 사역동사가 있다. 능격은 영어 'ergative'의 번역으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 동사인데, 'cause', 'bring about', 'create'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능격동사'라는 개념은 동사의 의미구조에서의 사역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사역성으로 인해 능격동사구문만의 통사구조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Perlmutter(1978)가 관계문법에서 정의한 비대격동사는 능격동사를 포함한 광의의 비대격 동사인데, 의미적 차원에서 피험체(Theme, Patient)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를 비대격 동사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b), (6b), (7b)에 있는 자동사도 비대격 동사라 할 수 있다. 모두 피험체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6) 이러한 유형은 비대격동사의 한 범주에 속하며 보통 타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Levin & Rappaport Hovav 1995:86).

그러나 모든 비대격동사가 능격동사가 될 수는 없다. 다음의 비대격 동사를 보자.

(8) arrive, exist, fall, happen, occur, appear

(8)에 있는 자동사들은 상응하는 타동사 또는 사역동사가 없어서 교체되지 않으므로 능격동사라 할 수 없다. 즉 타동사의 목적어가 자동사의 주어로 쓰이는 능격동사의 충분조건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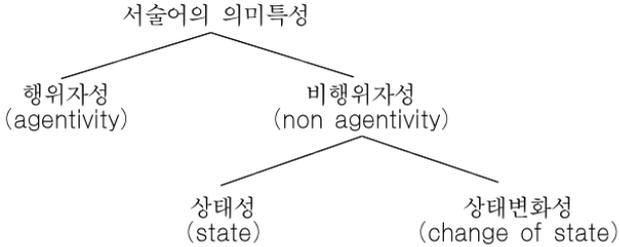
(4)의 구분처럼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의 대립은 타동사와 사역동사의 대립과 평행하다. 즉 비능격동사와 타동사, 비대격동사와 사역동사가 각각 한 부류에 속하고, 비능격동사에 목적어논항을 삽입했을 경우 타동사구문, 비대격동사에 사역주(Causer) 의미역을 부가하였을 경우 사역구문이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4d)의 사역동사는 비대격동사의 일종인 능격동사라고 할 수 있다.

‘비능격’이란 개념은 용어나 정의에 있어서 학자들의 이견이 없다. 비능격동사란 자동사의 주어가 행위자(agent)로서 동사에 의해 지시된 행위를 의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비능격동사는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순수한 자동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자동사는 크게 내부논항을 취하는 비대격동사와 외부논항을 취하는 비능격동사로 분류되며, 비대격동사는 다시 자동과 타동의 용법을 모두 가지는 능격동사와 자동의 용법만을 가지는 비대격동사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에 참여하는 논항의 차이는 이 두 동사 간의 의미적 대립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는 [±행위자성]에 의해 구분된다. 고광주(2001:66~68)는 한국어의 서술어를 그 의미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하였다.

(9)



서술어는 그 의미특성에 따라 크게 행위자성 서술어와 비행자성 서술어로 구분되며, 비행자성 서술어는 상태성 서술어와 상태변화성 서술어로 구분된다. 여기서 행위자성 서술어란 행위자의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뜻하는 것으로 타동사와 비능격동사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비행자성 서술어란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혹은 어떤 사물이 겪는 상태변화 따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계사(지정사), 존재사 등이 포함되고, 상태변화성의 서술어에는 사물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비행위자성 자동사와 피동사가 포함된다. 이렇듯 서술어를 그 의미특성에 따라 하위분류할 때, 비대격동사는 상태성과 상태변화성을 아우르는 비행위자성 서술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비능격동사와 타동사는 행위자의 능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행위자성 서술어에 해당하는 개념이 된다. 특히 자동사의 부류는 동작성에 속하는 행위자성 자동사와 상태변화성에 속하는 비행위자성 자동사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에 속하게 된다. Vendler(1967) 역시 전형적인 비능격동사는 행위동사인 반면에 비대격동사는 상태동사라고 하였다.<sup>7)</sup>

이러한 분류는 의미를 기준으로 자동사를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의 두 부류로 나눈 Perlmutter(1978)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Perlmutter는 Burzio(1986)와 더불어 통사적인 특징에 근거해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를 구분하였지만, 처음으로 동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7) 권경원(2006:177)

즉 비능격동사는 행동이나 행위와 관련되어 행위자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이고, 비대격동사는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는 자동사(크기, 모양, 무게, 색깔, 냄새 등)나 피험체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와 존재나 발생을 기술하는 자동사들이다. Perlmutter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0) a. 비능격동사: walk, work, fight, play, speak, talk, smile.  
 b. 비대격동사: arrive, burn, fall, drop, float, slide, slip.

사실, 비대격가설은 동사의 두 가지 부류 사이의 통사적인 차이를 주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차이가 완전히 의미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Levin & Rappaport Hovav 1995:4). 동사들 간의 유사성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라 할지라도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의미적 차이는 모두 [±행위자성]이라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의미정보가 통사구조로 사상되어 이상과 같은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논항 및 논항구조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대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비대격동사와 비능격동사의 통사·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비대격구문과 현대중국어 '被'구문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비대격가설의 적용가능 범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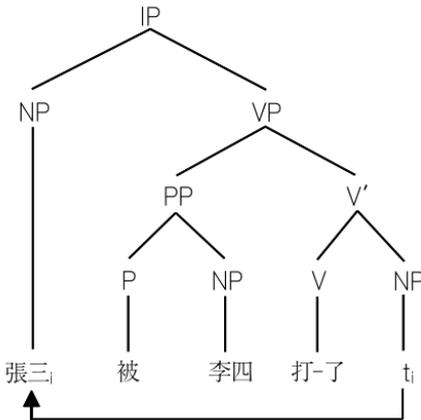
### 3. 비대격구문과 '被'구문

2장의 분석을 통해 비대격동사의 특징이 [-행위자성]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중국어 '被'구문은 피동작자를 문의 주어로 한다는 점에 있어 비대격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被'구문과 비대격구문의 생성방법을 동일

선상에 놓고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이 두 구문의 공통점은 주로 '이동(move)'이라는 통사적 관점과 '능격화(ergativization)'라는 어휘적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은 결국은 대격부여능력의 상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에 일치한다.<sup>8)</sup> 통사적 관점과 어휘적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동 형태소 '被'는 주요 동사의 주어 논항을 억제하는 자질과 대상 목적어에 정상적으로 부여된 대격을 흡수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 외부논항이 있다는 것은 주어 자리가 의미역 자리임을 뜻하기 때문에, 외부논항의 유무는 곧 바로 명사구 이동과 관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동화(passivization)와도 관련된다. 즉 격이 없어진 대상 목적어는 비의미역 주어위치로의 이동을 통해 격을 점검받게 된다. 이러한 통사적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동'이다. 즉 심층목적어가 [Spec IP]의 위치로 인상되어 주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Huang 2009:114).

(11)



8) 이것은 張惠(2009)가 비대격구조의 생성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 '被'구문 역시 이러한 비대격구조의 생성에 대한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被'구문의 생성 역시 이 두 가지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통사적 관점을 통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비문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 a. \*張三被李四打了他。  
 b. \*張三被李四打了自己。  
 c. \*張三被李四打了王五。  
 d. \*張三被李四來了。

이동은 주어가 생성된 목적어 위치에 명사구 흔적을 수반한다. (12a-c)는 목적어 위치에 다른 명사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 그 위치에서 생성될 수 없고 (12d)는 '來'가 자동사라서 주어 생성될 목적어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2a-d)는 비문이 된다.

둘째, 어휘적 관점은 '능격화(ergativization)'를 통해 설명된다. 鄧思穎(2004)은 '被'구문에 능격화를 도입하여 설명한다. '능격화'란 동사가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뀌는 통사과정을 말한다. 즉, 능격화는 통사층위에서 '被'가 선택하는 절/동사구 내의 타동사를 자동사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被 + [...V<sub>타동</sub>...] → 被 + [...V<sub>자동</sub>...]

'자동'은 엄격히 말해서, 동사가 대격 부여 능력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만약 '被'구문의 능격화가 통사 층위에서 발생하면, 아래와 같이 비문법적인 예문들이 바로 설명가능하다.

- (14) a. \*張三被(李四)哭了。  
 b. \*張三被(李四)死了。 鄧思穎(2004:292)

(14a)의 '哭'은 비능격동사이고 (14b)의 '死'는 비대격동사로 이들 모두 대격 부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격화를 실행할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은 '被'구문의 동사가 기본적으로 타동성(transitivity)을 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주어 위치가 비의미역위치임을 전제한다. 즉 타동성을 내재한 동사가 외부논항의 부재로 인해 대격부여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목적어가 비의미역위치인 주어 자리로 이동하여 격을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현대중국어 '被'구문의 기본적인 생성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듯하며, 동시에 '被'구문의 생성방법이 비대격현상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은 비대격구문과 마찬가지로 'Burzio의 일반화(Burzio's Generalization)'에 부합한다. 하지만 '被'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도 출현한다(이지현 2009:128).

- (15) a. 這些國家都先後被美國建立了軍事基地。  
이 국가들은 모두 차례로 미국에 의해 군사기지가 세워졌다.  
b. 那塊肉被媽媽炒了青椒。  
그 고기 덩어리는 어머니에 의해 피망과 함께 볶였다.  
c. 看守被罪犯跑了。  
간수는 범인이 도망치는 일을 겪었다.

(15a-b)에서는 '被' 뒤에 출현하는 VP의 목적어 위치가 비워져 있지 않고 별개의 NP로 채워져 있고 (15c)에서는 '被'뒤의 VP가 자동사로서 본래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NP는 VP의 피험체라고 할 수 없다. (15)의 예문들처럼 지금까지의 비대격가설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被'구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2장의 분석을 통해 비대격동사는 자동과 타동의 용법을 모두 가지는 능격동사와 자동의 용법만을 가지는 비대격동사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대격동사로 구성된 비대격구문에는 자동사구문의 'NP+V' 형식뿐만 아니라 타동사구문의 'NP<sub>1</sub>+V+NP<sub>2</sub>' 형식이 존재한다. 이외에 주의해야 할 형식으로 'V+NP' 형식의 표층 비대격구조(surface unaccusative constructions)가 있다. 이탈리아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Burzio 1986:21).

- (16) a. Molti esperti arriveranno.  
many experts will arrive  
'Many experts will arrive.'
- b. Arriveranno molti esperti.  
will arrive many experts  
'Many experts will arrive.'

(16)의 예에서 비대격동사 'arriveranno'의 유일한 논항인 'molti esperti'가 동사의 앞이나(16a) 동사의 뒤에(16b) 자유롭게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대격동사의 논항이 이동을 통해 표층구조에서 동사 앞에 실현되는 (16a)와 같은 현상을 심층비대격성(Deep Unaccusativity)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생성된 위치에 그대로 머물며 비대격구조의 심층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16b)와 같은 현상을 표층비대격성(Surface Unaccusativity)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층비대격구조는 격 할당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비대격가설의 기본적인 정의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Perlmutter (1978)나 Burzio(1986)에 의해 제창된 비대격가설에 의하면 비대격동사는 심층구조에서 목적어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NP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격을 할당받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Belletti(1988)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분격(partitive case)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다. Belletti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V 뒤에 나오는 NP는 두 종류의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격과 같은 구조격(structural case)이며, 나머지 하나는 부분격과 같은 고유격(inherent case)이다. 고유격이란 어휘부(Lexicon)에서 부여받는 격으로, 부분격이란 바로 이 고유격에 속한다. 따라서 부분격은 타동사와 비대격동사의 직접목적어에 할당된다. Belletti가 예로 든 핀란드어의 타동사 'put'의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 비대격동사의 목적어의 성질과 관련된 현상을 말하며, 이때 목적어는 반드시 비한정적이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적용하면 표층비대격구조의 NP는 기저생성(base-generated)되며, 비한정적인 이 NP는 동시에 생성된 위치에서 부분격을 할당받게 된다.

그렇다면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의 출현현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사실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에도 'NP+V' 형식 외에 'V+NP'와 'NP<sub>1</sub>+V+NP<sub>2</sub>'라는 2가지 다른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張惠 2009), 지금부터는 중국어의 매개변항(Parameter)을 고려한 분석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은 '被'구문의 생성이 '이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그럼 비대격구문의 2가지 유형인 'V+NP'와 'NP<sub>1</sub>+V+NP<sub>2</sub>'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먼저, 현대중국어의 표층비대격구조인 'V+NP'는 이탈리아어와 유사한 형태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 a. 來了客人。 손님이 왔다.  
b. 沉了三艘船。 배 세 척이 가라앉았다.

영어의 표층비대격성은 'there-삽입 구문(there-insertion construction)'이나 '장소구 도치 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에 의해서만 형성된다(Levin & Rappaport Hovav 1995:1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1) a. There appeared a ship on the horizon.  
b. Into the room came a man.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EPP)에 따르면, 영어의 EPP자질은 강자질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주어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V+NP'구조는 문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기 위해 V 앞에 반드시 'there'이나 '장소구'의 삽입이 수반되는 것이다(張惠 2009). 이와는 반

대로 중국어의 표층비대격구조는 이탈리아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없이도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sup>9)</sup>

黃正德(2007:6)은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의 표층비대격성과 심층비대격성을 주어도치(subject inversion)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2) a. 來了不少客人。 많은 손님들이 왔다.  
 b. 剛剛發生了一件車禍。 방금 차 사고가 한 건 발생했다.  
 c. 才走了張三。 就又來了李四。 막 張三이 갔는데, 바로 李四가 왔다.
- (23) a. \*哭了不少客人。(不少客人哭了。) 많은 손님들이 울었다.  
 b. \*睡着了李四。(李四睡着了。) 李四가 잠들었다.

(22)와 같은 비대격동사는 주어의 후치를 허용하지만, (23)과 같은 비능격동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비대격 가설의 관점에 따르면 후치된 주어가 사실은 본래 심층구조에서 목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피험체 목적어가 동사 뒤에 놓이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심층비대격구조인 'NP+V'는 표층비대격구조인 'V+NP'에서의 NP-이동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NP+V'에서 'V+NP'로의 교체가 자연스러운 중국어는 '이동'과 '기저생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NP에 '주격(nominative case)'과 '부분격'을 각각 할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교체, 즉 주어도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NP가 반드시 비한정적이어야 한다. 중국어 비대격 동사의 심층/표층의 비대격성의 특징인 한정성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趙楊 2006).<sup>10)</sup>

- (24) a. 上個月, 三艘船在這個海域沉了。  
 지난 달, 세 척의 배가 이 해역에서 침몰되었다.  
 b. 上個月, 在這個海域沉了三艘船。  
 지난 달, 이 해역에서 세 척의 배가 침몰되었다.

9)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어는 '영-주어 언어(null-subject language)'이고, 영어는 '영-주어 언어'가 아니라고 본다.

10) 김혜경(2009b:224) 재인용.

c. \*上個月, 在這個海域沉了那艘船。

지난 달, 이 해역에서 그 배가 침몰되었다.

(24a)의 내부논항인 ‘三艘船’은 주어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고 (24b)와 같이 그것이 비한정적일 때 표층구조의 목적어 위치에 남아있을 수 있다(Y.H. LI 1999:Yu 1995). 이와는 반대로 (24c)의 내부논항이 ‘那艘船’과 같이 한정적일 때는 반드시 앞으로 이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문이 된다. 즉 내부논항의 이동은 그 NP가 한정적일 때만 의무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심층비대격구조인 ‘NP+V’와 표층비대격구조인 ‘V+NP’는 NP가 비한정적일 경우에만 두 구조 사이의 교체가 자연스럽다. 즉 비한정적인 NP는 주어위치로의 이동이나 목적어 위치에서의 기저생성을 통해 각각 ‘주격’과 ‘부분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NP는 이탈리아어의 i-subject와 같은 특징을 나타냄을 본고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NP<sub>1</sub>+V+NP<sub>2</sub>’ 형식은 두 개의 구조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는 NP<sub>1</sub>이 사역주인 ‘사역구문’이며, 둘째는 NP<sub>1</sub>과 NP<sub>2</sub>가 소유관계인 ‘領主屬賓句’이다. 첫 번째 유형인 ‘사역구문’의 경우 비대격동사의 한 범주인 능격동사구문으로 볼 수 있다. 黃正德(2007:5)은 Burzio(1986)의 분류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비능격 계열과 비대격계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11)</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5) a. 비능격 계열

1항: 笑, 哭, 飛, 跳, 吵鬧 등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

2항: 打, 罵, 吃, 寫, 批評, 欺騙, 讚美, 打勝 등 타동사.

11) 呂叔湘(1987)은 일찍이 ‘勝’과 ‘敗’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中國隊勝. (비능격동사)

중국팀이 이겼다.

b. 中國隊勝了韓國隊. (타동사)

중국팀이 한국팀을 이겼다.

(2) a. 中國隊敗. (비대격동사)

중국팀이 패배하다.

b. 中國隊敗了韓國隊. (사역동사)

중국팀이 한국팀을 패배시켰다.

## b. 비대격 계열

1항: 來, 是, 有, 死, 出現, 發生 등 존현동사와 자동의 開, 關, 沉, 搖, 嚇(了一跳), 氣死 등의 기동동사(inchoative verb).

2항: 타동의 開, 關, 沉, 搖, 嚇(了他一跳), 氣死(了李四) 등의 사역동사.

즉, 비대격구조 'V+NP'의 주어 위치에 사역주(Causer) NP<sub>1</sub>을 부가하면 'NP<sub>1</sub>+V+NP<sub>2</sub>' 형식인 타동의 사역구문이 완성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6) a. 沉了船 → (船沉了) → 水手們沉了船  
 b. 滅火了 → (火滅了) → 她滅火了

예문 (26)을 통해 'V+NP', 'NP+V', 'NP<sub>1</sub>+V+NP<sub>2</sub>'의 세 가지 유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V+NP'를 중심으로 명사구 이동을 통해 'NP+V'가 생성되고, 사역주 논항 부가를 통해 'NP<sub>1</sub>+V+NP<sub>2</sub>'가 생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역구문'에서의 NP<sub>1</sub>은 외부적으로 부가된 사역주 논항으로 비대격/사역교체(unaccusative/causative alternation)를 나타내는데 반해, 두 번째 유형인 '領主屬賓句'에서 NP<sub>1</sub>은 V 뒤의 NP<sub>2</sub>인 소유격 명사구에서 그 일부인 소유격 성분이 이동한 결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내부논항인 비사역주 논항이라는 데에 있다. 徐杰(1999), 溫賓利(2001), 韓景泉(2000) 등은 '소유자인상이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sup>12)</sup> '領主屬賓句'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으로 "王冕死了父親(王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을 들 수 있는데, 이 예문은 "死了王冕的父親"에서 소유격 성분인 '王冕'이 문두로 이동하여 "王冕死了父親"이 생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은 왜 그 소유격 성분만이 이동하는지, 또한 남겨진 NP<sub>2</sub>의 격은 어떻게 할당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徐杰(1999)은 "王冕死了父親"과 '被'구문인 "張三被殺了父親(張三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과 같은 두 구

12) '소유자인상이동'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각기 다르다. 徐杰은 목적어 위치의 NP에 부분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동이 발생한다고 보며, 溫賓利는 중국어 문장기능중심어의 강(D)자질이 흡수한 결과 이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韓景泉은 목적어 위치의 NP에 주격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문의 심층구조를 “死了王冕的父親”과 “被殺了張三的父親”이라고 설정하고, 보류 목적어 ‘父親’에 부분격을 부여하기 위해 소유자인 ‘王冕’과 ‘張三’이 이동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王冕的父親’과 ‘張三的父親’은 한정성 명사구라서 부분격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徐傑은 소유자 이동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에게 주격을 부여하고, 또한 이 이동으로 인해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은 보류목적어 ‘父親’에 부분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격 부여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격을 할당받는 명사가 한정적인 예가 중국어에 분명히 출현한다.<sup>14)</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아래 예문 (3)에서 (5)의 보류목적어 ‘那匹馬’, ‘它’, ‘李四’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張三被嚇走了馬。  
張三의 말은 놀라서 도망갔다.  
(2) 張三被嚇走了一匹馬。  
張三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도망갔다.  
(3) \*張三被嚇走了那匹馬。  
張三의 그 말은 놀라서 도망갔다.  
(4) \*張三被嚇走了它。  
張三의 그것은 놀라서 도망갔다.  
(5) \*張三被嚇走了李四。

張三의 李四가 놀라서 도망가게 했다. 鄧思穎(2004:296)

14) 이외에도 ‘소유자인상이동’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김인순 2010).

첫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소유자의 이동 동기이다. 사실 이동 동기가 소유자에 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이동은 실질적으로 ‘중복 격부여’와 ‘격충돌’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소유자 자체에 구조격, 즉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격부여를 위해 이동한다는 동기 자체를 상설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소유자가 이동한 후에 주격을 획득하면, 소유격에 주격이 부가되어, 중복 격부여와 격충돌을 야기하게 된다(潘海華·韓景泉(2005), 朱行帆(2005), 沈家煊(2006))

둘째, 중국어에서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명사구에서 이동할 수 없다(Huang 1984). (1a)의 소유자 ‘張三’은 ‘張三(的)父親’으로부터 주체화될 수 없으며, (1b)의 ‘那個人’은 ‘那個人(的)父親’으로부터 이동하여 수식어의 피수식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張三, 我看見了[ 父親].  
b. \* [我看見[ 父親]]的那個人.

셋째, 일부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주어는 근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 (2) a. 昨天他們發生了一件車禍。( \*昨天發生了他們(的)一件車禍)  
어제 그들은 차사고가 발생했다. 黃正德(2007:8)  
b. 那塊肉被炒了青椒。 (\*炒了那塊肉(的)青椒)

그 고기는 피망과 같이 볶아졌다.

鄧思穎(2004:296)

- (27) a. 張三掉了他的錢包。 張惠(2009:425)  
 張三是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b. 李四被炸彈炸斷了他的右腿。 熊仲儒(2003:208)  
 李四是 폭탄으로 인해 그의 오른쪽 다리가 잘려나갔다.

(27)과 같은 예문으로 인해 '領主屬賓句'와 '被'구문에서의 NP<sub>1</sub>이 과연 이동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동'이 부정된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저생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역구문'의 'NP<sub>1</sub>+V+NP<sub>2</sub>' 형식과 같이 주어 NP<sub>1</sub>이 기저생성되어 'V+NP'와 병합(merge)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대격구조인 'V+NP'의 주어 위치에 사역주 논항을 부가하거나 경험자(Experiencer) 논항을 부가하여 'NP<sub>1</sub>+V+NP<sub>2</sub>'와 같은 타동 형식이 생성되며, 외부논항을 취하는 V는 목적어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Burzio의 일반화'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黃正德(2007)에 따르면 비대격계열 동사는 내부논항, 중간논항, 외부논항을 가지며, 각각 피험체, 경험자, 사역주를 담당한다. 그는 주어가 경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반드시 비대격 계열에 속해야한다고 본다. 비능격동사의 기초 논항은 행위자이기 때문에, 주어는 경험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비대격계열에는 1항술어도 있고, 2항술어도 있다. 2항술어의 첫 번째 유형인 'NP<sub>1</sub>+V+NP<sub>2</sub>'는 '사역구문'으로 사역주를 그 외부논항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피험체 위에 더해지는 논항이 사역주가 아닌 경험자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동사 '來'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

- (28) a. (等了半天) 終於來了一碗麵。 (대상 혹은 피험체)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짜장면 한 그릇이 나왔다.  
 b. 你來碗炸醬麵吧? 答: 謝謝, 我已經來過兩碗了。 (我=경험자)  
 너도 짜장면 한 그릇 하지 그래?  
 答: 고마워, 나는 벌써 두 그릇을 먹었어.  
 c. 小二, 給我來碗炸醬麵。 (小二=사역주)  
 저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黃正德(2007:7)

영어로 옮기면 (28a)의 '來'는 'come'이 되며, (28b)에서는 'come to me(=I have)'가 되고, (28c)에서는 'bring(=cause to come)'이 된다. 경험자와 사역주는 두 개의 다른 논항이며 의미역계층(thematic hierarchy) 상의 순서에서 사역주는 경험자보다 높고, 경험자는 또한 피험체나 대상보다 높다. 따라서 '來'가 내부논항과 외부논항 외에도 중간논항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비대격동사 '來'는 1항이나 2항술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3항술어가 될 수도 있으며, 각각 존현문, 경험문, 사역문을 형성한다. 즉 비대격동사는 내부논항, 중간논항, 외부논항을 취할 수 있는데 각각 1항술어, 2항술어, 2항 혹은 3항술어의 형태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NP+V'와 'V+NP'에서 NP는 V의 내부논항이며 그 의미역은 피험체이다. 'NP<sub>1</sub>+V+NP<sub>2</sub>'에서 '領主屬賓句'와 사역구문의 NP<sub>1</sub>은 각각 V의 중간논항과 외부논항이며, 이때 NP<sub>1</sub>의 의미역은 각각 경험자와 사역주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격구문과 '被'구문의 충분조건은 [-행위자성]이지, 대격부여능력의 부재로 인한 이동으로 볼 수 없다. 비대격구조에서 'NP+V' 형식을 제외한 'V+NP'형식에서의 NP와 'NP<sub>1</sub>+V+NP<sub>2</sub>'의 두 가지 유형인 '사역구문'과 '領主屬賓句'의 NP<sub>1</sub>은 기저생성된다. 특히 '被'구문은 '領主屬賓句'와 그 생성방법이 유사함을 본고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被'구문의 주어는 이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저생성되며, 중간논항으로 경험자 의미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맺는 말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과 '被'구문은 유사한 생성방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논문에서 함께 다루어졌다. '被'구문은 비대격구문의 특징인 [-행위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측면에 맞추어 분석이 진행되었으나 본고

의 분석을 통해 이 두 구문 모두 이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중국어 비대격구조는 'NP+V', 'V+NP', 'NP<sub>1</sub>+V+NP<sub>2</sub>'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NP<sub>1</sub>+V+NP<sub>2</sub>'형식의 경우 다시 '사역구문'과 '領主屬賓句'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被'구문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 비대격구문의 다양한 유형을 모두 분석해 그 특징을 도출해 냈다. 그 결과 'V+NP'의 NP, 'NP<sub>1</sub>+V+NP<sub>2</sub>'의 두 가지 형식에서의 NP<sub>1</sub> 및 '被'구문의 주어는 이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저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P<sub>1</sub>+V+NP<sub>2</sub>'의 두 유형에서 사역구문의 주어는 외부논항으로 그 의미역은 사역주이며, 생성과정이 유사한 '被'구문과 '領主屬賓句'의 주어는 중간논항으로 경험자 의미역을 나타냄을 본고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 參考文獻 >

- 고광주(2001), 《논항구조와 영어통사론》, 서울: 월인.
- 김인순(2010),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목적어 출현현상에 대한 소고 —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27, 137-159.
- 김혜경(2009a), <현대중국어 'V-得'결과구문의 사역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9b), <현대중국어 비대격구조의 특징 고찰>, 《중국어언학논집》 제58호, 205-234.
- 권경원(2006), <비대격 동사와 비능격 동사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 《현대영어영문학》 제50권 4호, 173-197.
- 이지현(2006), <현대중국어 능격동사 初探-비대격동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언학논집》 제40호, 83-105.
- \_\_\_\_\_ (2009), <현대 중국어 피동 사건의 의미 구조 고찰>, 《중국어언학논집》 제54호, 127-142.

- 정태구(2001/2002), 《논항구조와 영어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 曹道根(2009), <漢語被動句的事件結構及其形態句法實現>, 《現代外語》第32卷第1期, 1-12.
- 鄧思穎(2004), <作格化和漢語被動句>, 《中國語文》第4期, 291-301.
- \_\_\_\_\_ (2008), <漢語被動句句法分析的重新思考>, 《當代語言學》第10卷第4期, 308-319.
- 潘海華·韓景泉(2005), <顯性非賓格動詞結構的句法研究>, 《語言研究》第25卷第3期, 1-13.
- 韓景泉(2000), <領有名詞提昇移位與格理論>, 《現代外語》第3期, 261-272.
- 黃正德(2007), <漢語動詞的題元結構與其句法表現>, 《語言科學》第4期, 3-21.
- \_\_\_\_\_ (2008), <從“他的老師當得好”談起>, 《語言科學》第7卷第3期, 225-241.
- 熊中儒(2003), <漢語被動句句法結構分析>, 《當代語言學》第5卷第3期, 206-221.
- 徐傑(1999), <兩種保留賓語句式及相關句法理論問題>, 《當代語言學》第1卷第1期, 16-29.
- \_\_\_\_\_ (2001), <“及物性”特徵與相關的四類動詞>, 《語言研究》第3期(總第44期).
- 楊素英(1999), <從非賓格動詞現象看語義與句法結構之間的關係>, 《當代語言學》第1卷第1期, 30-43.
- 張慧(2009), <現代漢語非賓格結構的內部句法差異>, Proceedings of the 21st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NACCL-21), Volume 2, 417-435.
- 朱行帆(2005), <輕動詞和漢語不及物動詞帶賓語現象>, 《現代外語》第3期, 221-231.
- Belletti(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34.
- Beth Levin and Malka Rappaport Hovav(1995), *Unaccusativity*, The MIT Press.
- Burzio, Luigi(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Huang, C.-T. James(1997), On lexical structure and syntactic projection, In Feng-fu Tsao and H. S. Wang, eds,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3*. Taipei: Academia Sinica. 45-89.
- \_\_\_\_\_ (2009), “Passive”, in C.-T. James Huang et al.(ed), *The Syntax of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lmutter(1978), “Impersonal Passive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J. Jaeger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adford(1997),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 A minimalist approach*; 이홍배 옮김(1999), 《최소주의 통사이론과 영어》, 서울: 한신문화사.

### < 中文提要 >

自從Perlmutter(1978)在普遍語法框架下提出非賓格假說(Unaccusative Hypothesis)以來, 現代漢語語法研究中逐漸興起利用該假說來解釋各種語法現象, 特別是在研究“被”字句上。由於“被”字句的句法現象與非賓格動詞的特點在某些方面正好契合, 因此語言學家對非賓格動詞和“被”字句的語義和相關的句法現象作了不少研究, 也試圖解釋“被”字句的非賓格性。

本文首先介紹了非賓格假說, 然後分析了非賓格動詞句和“被”字句之間句法上的異同, 最後得到了以下結論: 即非賓格動詞句和“被”字句之間共同點在於[-施事性], 而不是在於“移位”。“V+NP”的“NP”、“NP<sub>1</sub>+V+NP<sub>2</sub>”的兩種類型的主語“NP<sub>1</sub>”和“被”字句的主語并不是移位生成的, 而是基底生成的。使役句的主語是外在論元而它的論旨角色是致事, “被”字句和“領主屬賓句”的主語是中間論元而它的論旨角色是歷事。

關鍵詞: 非賓格假說, 非賓格動詞, 非作格動詞, 作格動詞, “被”字句.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12.27	2011.2.10	2011.2.14	2011.2.15	2011.2.28